

# 부록 I. EU Solvency II

■ EU Solvency II는 은행의 Basel II와 유사한 구조로 지급능력(pillar 1), 리스크 관리(pillar 2), 공시(pillar 3)인 3층 체계로 구성됨.

- 주요 특징으로 자산·부채의 시가평가, 요구자본의 이원화, 측정대상 리스크의 세분화임.
  - 평가시점의 계리적 가정(사업비율, 해약률 등)과 시장 가정(할인율)을 바탕으로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함.
  - 요구자본을 최소요구자본(MCR)과 지급능력요구자본(SCR)로 이원화하여 규제를 차별화함.
  - 요구자본 산출 시 정량화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고려함.

〈부록 표 I-1〉 EU Solvency II의 체계

Pillar 1	Pillar 2	Pillar 3
자본금요건 규제 (정량적 요건)	감독 평가과정 규제 (정성적 요건)	시장원리 및 공시 규제 (시장규율을 강화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산, 부채의 가치평가</li> <li>• 책임준비금</li> <li>• 가용자본</li> <li>• 요구자본(SCR, MCR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체리스크 평가(ORSA)</li> <li>• 지배구조</li> <li>• 리스크관리</li> <li>• 내부통제(감사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업 및 보험활동 성과</li> <li>• 지배구조, 리스크 특성평가</li> <li>• 리스크별 익스포저, 민감도</li> <li>• 자산부채 평가근거, 방법</li> </ul>

■ EU Solvency II에서 자산 및 부채 평가 시 경제적 측면에서의 시장참여자가 사용하는 가정을 이용함.

-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은 보험자가 보유계약 관련 권리, 의무를 다른 보험자에게 이전 시 지급해야하는 금액인 최선추정치와 보험계약에 내재된 불확실성 관련 버퍼인 위험마진의 합으로 구성됨.
  
- EU Solvency II 의 가용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, 즉 순자산가치를 기본으로 하고,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함.